지역 메아리

완주군, 시티투어버스 첫 시동

완주군이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시동을 걸었다.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채군)는 완주의 문화와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완주시티투어 운행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완주시티투어는 문화유적과 맛집, 체험마을 등 완주군 관광지를 두루 둘러 볼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도록 문화해설 안내를 받으며 진행된다.

'조선왕조의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로 운행되는 완주시티투어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위봉사와 위봉산성, 대승한지마을과 화심 순두부거리를 거쳐 삼례문화예술촌과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에 도착하는 코스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정규코스와 더불어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계절별 테마코스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완주관광의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시티투어 참여는 사전예약으로 운영되고 성인기준 30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블로그 또는 (사)마을통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저소득층 노인의치 사업 확대 실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회)는 구강건강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 시술비용(틀니 및 지대치보철포함)및 사후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김제시 조례를 제정 노인의치(틀니)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으로 김제시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만65세 이상 기 시술자 보험적용 기준 만7년 경과자로 접수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26일 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의치 신청자는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지역내 협력치과의원에서 의치 시술을 받게 된다.

김제시 인구 고령화와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구강건강증진에 대한 환경조성과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요구되고 있다.

김제시 보건소는 지역내 노인인구와 의료 취약 인구에게 구강건강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정기검진을 독려하고 다양한 구강보건 교육 및 불소도포등 예방진료 제공으로 질병부담 최소화와 경제적 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청년 지역정착 지원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참여자 110명 대상 직무역량 강화 등

완주군은 11일 가족문화회관 가족홀에서 청년 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완주군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완주군은 오는 11월 12일까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110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와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군은 가족문화회관 가족홀에서 청년 일자리사업 발대식과 함께 취업 청년의 애로사항을 군수가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군은 취업 초년생들에게 필요한 기초세무회계,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및 홍보실무 등 기본교육과 공동체, 농업식품, 문화예술, 교육복지 등 분과별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통해 완주군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토크콘서트, 힐링캠프, 리빙라이브러리 등의 네트워킹과 지역 전문가 멘토링도 병행한다.

특히, 청년의 지역내 유입과 정착을 위해 자체 추진 중인 '완주 청년 Jump 프로젝트' 사업 중 호응도가 높은 쉐어하우스, 행복주택과 같은 주거지원 사업과 너멍굴 영화제, 청년 난장, 청년축제와 같은 청년 간 교류 활동에도 우선 참여시킨다.

지원사업에 참가한 김선국(남, 26, 이랑 협동조합)씨는 "행안부 일자리사업을 통해 장애아동 발달교육 전공을 살려 취업 하게됐고, 즐겁게 근무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 나아가 완주군에 정착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청년 고용률과 청년인구 증가를 위해 일자리와 더불어 청년 삶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1개 사업 11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온누리살이 협동조합 컨소시엄'과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1억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11일 임광희 임도령 남원추어탕 대표와 한규현 삼례 한도령본가추어탕 대표가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해요"

임광희·한규현씨 김제사랑장학재단에 200만원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은 11일 임광희 임도령 남원추어탕 대표와 한규현 삼례 한도령본가추어탕 대표가 장학재단을 찾아와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요촌동에 위치한 임도령남원추어탕은 이미 잘 알려진 김제맛집으로 점심이나 저녁식사시간대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완주 삼례에 위치한 한도령본가추어탕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추어탕맛집으로 정평이 나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도 같이 활동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어 주민들의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임도령 남원추어탕 임광희 대표는 "장학금 전달은 지역주민으로서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기 위한 작은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열악한 김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한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학금을 기탁해준 두 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우수한 젊은이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아낌없는 장학사업을 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KTX 김제역 정차 범시민 홍보활동 전개

김제시 경제복지국·사회단체 합동, 릴레이 캠페인 추진

김제시 경제복지국 직원들과 직능·사회단체는 11일 김제전통시장 일원에서 합동으로 KTX 김제역 정차를 이끌어내기 위한 범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시청 직원들과 사회단체 회원들 모두 한목소리로 '김제역은 2004년 KTX가 개통된 이래 2015년 호남고속철 개통 전까지 KTX가 운행되었으나 호남고속철 개통시 KTX 김제역 정차 운행이 배제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구하는 현 정부 핵심가치에 맞게 하루속히 익산~김제~정읍~광주간 운행이 재개되어야 한다.'며 현수막 홍보, 리플렛 배부 등을 나눠주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홍보캠페인은 경제복지국장을 총괄로 경제복지국 4개과(경제진흥과, 주민복지과, 민원지적과, 체육청소년과)와 11개 단체(김제전통시장상인회, 김제소상공인협의회, 공인중개사협회 김제시지회,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제사회복지관, 김제제일사회복지관,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한국신장장애인협의회 김제시지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제시체육회) 약100여명이 참여하였다.

경제복지국장은 'KTX 김제역 정차는 모든 시민들의 염원인 만큼, KTX 김제역 정차 운행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과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제복지국에서 추진하는 KTX 김제역 정차 범시민 홍보캠페인은 4월중에 앞으로 2회(4.18, 4.25) 더 펼쳐질 예정이며, 경제복지국을 필두로 전 청원이 합동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구 두월천노을권역 마을센터 개관

김제시 금구면의 두월천노을권역(이하 두월노을마을)의 거점이 될 두월노을관 개관식이 11일 성대히 열렸다.

두월노을관 개관식은 테이프커팅식 등으로 진행 되었으며, 박준배 김제시장,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두월노을마을은 2015년부터 금구면 청운리와 낙성리 6개 마을주민이 참여하여 일반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행복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라는 비전하에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지향하며 주요 프로그램은 사진·공예교실, 한글교육, 체험학습과 주민주도의 마을축제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도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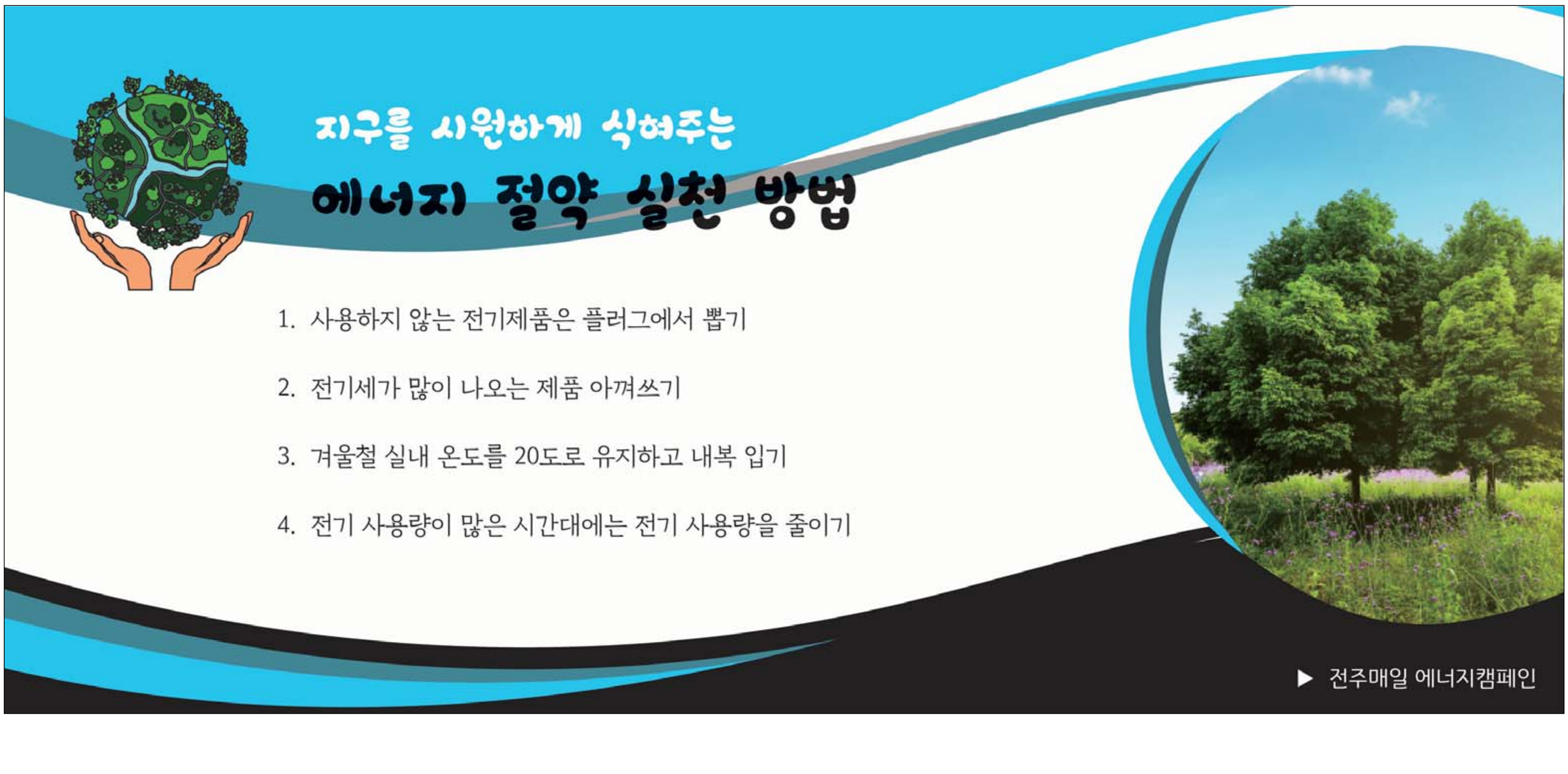
완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완주군이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완주군은 문화강좌실에서 100여명의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오후 2시 '완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재생 전략, 지역의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도시 재생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획이다.

이날 공청회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개요,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지역 지정(안) 설명과 더불어 도시재생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과 주민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조법종 우석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완주군의회 김재천의원, 국토연구원 이왕건박사, LH토지주택연구원 이상준박사, 전북연구원 오병록박사,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김택천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의 쇠퇴한 도시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토론회에 참여한 주민들도 평소 생각하고 있던 우리 지역의 발전 방향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군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군의회 의견청취와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완주=이중복 기자